

이적생 서동욱 ‘연봉 홈런’ 예약이오

‘호랑이 군단’ 연봉 훈풍 불까

올 시즌 5800만원

역대 연봉 진입 확실히

‘따뜻한 연말’ 기대감

5년 만의 가을 잔치를 이룬 ‘호랑이 군단’에 연봉 훈풍이 불까?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5위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짜릿한 와일드카드 결정전 무대를 경험했다. 2년 연속 8위에 머물렀던 KIA는 김기태 감독의 부임 첫 해였던 지난해 6위, 올 시즌에는 5위로 정규시즌을 마감하면서 연봉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KIA는 2013·2014년 최하위 다름을 하면서 2년 연속 추운 겨울을 보냈다. 2013 시즌이 끝나고 연봉 총액이 20%가 줄었고, 2014시즌에도 8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연봉 한파가 닥쳤다.

지난해 5강 싸움 끝에 6위를 기록하며 모처럼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다.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연봉 총액은 지난해 44억400만원(51명)에서 올 시즌 59억9900(49명)으로 뛰어올랐다. 평균연봉도 8635만원에서 1억2243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kt(5273만원), NC(8350만원)에 이어 평균연봉 전체 8위였던 KIA는 올 시즌에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최하위 넥센(8116만원), kt(8369만원) 그리고 지난해를 박석민에게 FA 최고액을 안겨준 NC(1억2150만원)에 이어 7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연봉 상위권에도 KIA 선수들의 이름이 랭크됐다. 윤석민과 양현종은 각각 12억 5000만원과 7억5000만원으로 투수 연봉 1위와 6위 자리를 차지했다. 선수단 평균 연봉에 집계되지는 않지만 헥터 노에시 170만 달러(약 20억원), 브렛 필 90만 달러(약 10억6000만원) 등 외국인 선수에 대한 통큰 투자도 있었다.

이번 겨울에는 성적 상승에 따라 10%가량 인상된 연봉 총액을 놓고 재계약 작업이 이뤄진다.

친정팀에서 ‘제 2의 야구 인생’을 연 서동욱의 인상폭에 눈길이 쏠린다. 올 시즌 KIA의 전체 고과 1위 자리는 ‘해결사’ 외 야수 김주찬이 차지했다. 투수 부문 고과 1위 주인공은 좌완 양현종이다. FA의 두 사람을 뺀 사실상 연봉 고과 1위는 서동욱이다. 올 시즌 58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서동욱의 역대 연봉 진입은 확실시된다.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기록될 지가 더 관심사다.

KIA는 지난 마무리 캠프 중반부터 저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먼저 협상을 진행했



넥센과의 무조건 트레이드로 올 시즌 ‘친정팀’ KIA로 돌아온 서동욱은 올 시즌 124경기에 나와 0.292의 타율과 함께 16홈런 67타점의 활약을 하며 반전을 이뤘다. 올 시즌 58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서동욱은 수비에서도 전천후 활약을 하며 역대 연봉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다. 저액 연봉자들은 대부분 인상된 연봉을 제시받으면서 속속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 주축 선수들과의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연봉 상승 분위기 속 인상률을 놓고 진통은 예상된다. 2년 연속 순위 상승이라는 성과 속에, KIA가 FA 사상 첫 100억이라는 벽을 깨면서 최형우를 영입한 만

큼 묵묵히 역할을 해왔던 내부 선수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KIA 잔류를 선언한 양현종과의 계약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스토브리그 큰 손으로 역할을 해온

KIA가 연봉 훈풍으로 따뜻한 12월을 보내고, 뜨거운 2017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노보드 알파인 월드컵

이상호 첫 메달 도전

스노보드 알파인 유망주 이상호(21)가 15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카레차에서 열린 2016~2017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스키종목 사상 첫 월드컵 메달에 도전한다.

이상호가 출전할 종목은 평행대회전 종목이며, 이번 대회는 시즌 첫 스노보드 알파인 월드컵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FIS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드러낸 이상호는 올 3월 유로파컵 우승까지 차지하며 상승세를 탔다.

유로파컵 우승으로 2015~2016시즌 FIS 포인트 15위로 마감한 이상호는 FIS 포인트 상위 16명에게 주어지는 국제대회 앞 순위 경기 자격을 획득해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상현(41) 국가대표 코치는 “이상호는 세계 톱랭커와 비교해 속도와 기술 모두 대등하다. 실제로 훈련 중에는 이길 때도 잦다”며 “다만 어린 나이인지라 경험과 멘탈을 지속해서 보완하면 2018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스키협회는 이상현 코치 외에도 외국인 기술전문 코치와 왓싱 담당 코치 등 5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 파견해 이상호의 경기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상호는 카레차 월드컵을 마친 뒤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동해 17일부터는 평행회전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평창 올림픽 테스트

쇼트트랙 월드컵 내일 개막

디제잉 공연 등 이벤트 풍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종목 첫 테스트이벤트인 2016~2017 KB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평창조직위원회는 15일 “17일 정오에 시작하는 개막식에서 탤런트 박재민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사회자로 참가한다”며 “강릉 예총 어린이 합창단 개릴 합창, 프로농구 서울 SK 치어리더팀 공연, 쇼트트랙월드컵 음악 총감독인 DJ 크랩의 디제잉 공연, 아이돌그룹 아이오아이의 공연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개막식 후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해리, 유도 동메달리스트 곽동환, 펜싱 동메달리스트 김정환 등 스포츠 스타 10여 명이 경품 추첨 등 특별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18일엔 어린이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과 강릉 퓨전국악공연단 공연, 개그맨 정찬우와 치어리더 박기랑의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할리우드 액션으로 공분을 산 전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인턴 오노는 NBC 리포터로 방한하는데, 이날 김동성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조직위는 대형 냉장고 4대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쇼트트랙월드컵 4차 대회 겸 테스트 이벤트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네시스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 2016에서 제네시스 상금왕을 수상한 최진호가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호 KPGA 대상·상금왕 수상

최진호(32·현대제철)가 2016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주요 부문 타이틀을 휩쓸었다.

최진호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PGA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대상과 상금왕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KPGA 투어에서 대상과 상금왕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2014년 김승혁(30) 이후 2년 만이다.

최진호는 또 드라이브샷 거리, 페어웨이 안착률, 그린 적중률, 평균 퍼트, 평균 타수 5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포인트로 환산한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포인트상과 함께 골프기자단이 주는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까지 수상해 4관왕에 올랐다. 최진호는 이번 2승을 올린 것을 포함해 상금 4억 2000만원을 쌓았다.

두 달 전 셋째 아들을 얻은 최진호는 “첫째, 둘째 아들과 우승 트로피를 들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며 “내년에도 셋째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신인상(명출상)은 김태우(23)에게 돌아

갔다.

이창우(23·CJ오쇼핑)는 최진호와 대상 경쟁에서 뒤져 2위에 그쳤지만, 시즌 평균 69.45타로 최저타수상(덕출상)을 받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시우(21·CJ대한통운)와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2승을 올리고 신인상을 받은 왕정훈(21)은 해외특별상을 받았다.

팬들의 투표로 뽑은 인기상인 해피 투게더 상은 이형준(24·JDX멀티스포츠)에게 돌아갔다. 이형준은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합계 26언더파 262타를 쳐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과 함께 KPGA 역대 최다 언더파·최저타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즌 평균 294.705야드의 드라이버거리를 기록한 김건하(24)는 장타상을, 하인희(29·JDX멀티스포츠)는 올해의 베스트샷상을 받았다. 하인희는 SK텔레콤 오픈 2라운드 8번홀(파3)에서 짜릿한 홀인원을 기록했다. 당시 하인희는 캐디 없이 혼자 백을 메고 18홀 경기를 치러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추신수 WBC 못뛰나

텍사스 언론 “구단, 부상 위험에 불참 요청서 낼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의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텍사스주 지역 신문 ‘스타 텔레그램’은 15일(이하 한국시간) “텍사스 구단이 부상 위험이 있는 추신수와 다르빗슈 유(일본), 엘비스 앤드루스(베네수엘라)의 WBC 불참 요청서를 (WBC 사무국에) 18일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신수는 앞서 WBC 대한민국 대표팀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대표선수 선발을 맡은 KBO 기술위원회 역시 그를 28인 최종 엔트리에 포함했다.

2009년 2회 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타자 역할을 맡았던 추신수는 2013년 3회 WBC에 불참했다. 당시 추신수는 프리에이전트(FA)를 앞둔 상황이었고, 트레이드(클리블랜드 인디언스→신시내티 레즈) 후 처음 맞이하는 시즌이라는 이유로 대표팀 합류를 고사했다.

올해 추신수는 잦은 부상으로 4차례 부

상자명단(DL)에 드나들었고, 시즌 48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의 부상 경력 때문에 WBC 출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추신수는 귀국 후 인터뷰에서 “팀에 대표팀 합류를 강하게 요청했다. 구단에서는 걱정 때문인지 옆에 두고 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지만, 잘 설명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다”며 출전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추신수의 팀 동료인 유릭스는 프로파르(네덜란드) 역시 WBC 출전에 유력하다.

신문은 “프로파르는 텍사스가 자신을 트레이드하지 않는 한 네덜란드 대표로 출전할 계획이며, 외야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WBC 1라운드 A조는 한국의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며, 한국 대표팀은 내년 3월 7일 네덜란드와 조별예선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